

## 광주시 우치동물원 동물 장묘관리체계 구축한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주)퍼스트펫 업무협약 체결…동물 장례·화장 절차 지원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주)퍼스트펫과 '동물 장묘 서비스 및 사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치동물원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장묘와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와 (주)퍼스트펫은 ▲우치동물원 사망 개체의 장례·화장 절차 지원 ▲운구 및 유해 관리 등 사후관리 협력 ▲동물복지 향상 관련한 자문 및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장묘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도한 절차를 지양하면서도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우치동물원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동물과 보호, 동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들에게 생명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시민과 함께 만든 하마 '히뽀' 주모공간의 위치와도 맞닿아 있다. 우치동물원이 동물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공간으로 자리

손권일 기자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올 상반기에 본격화

상반기 본격 착공·무상 귀속, 공공기여 시설의 실시설계

전주의 변화를 이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시는 시공자 선정과 감리자 지정,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내 무상귀속 시설과 공공 기여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더불어 공공기여 시설의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와 재해·재난·환경·안전·교육환경·소방 등의 영향평가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 후 지난해 9월 전주 관

광파워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시는 도심 속 유休부지로 폐석면 건축물이 방치돼 시민 건강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자광과 사전협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간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기준에 대해 공공기여로 2,52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100억 원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흉산로~△홍산로~△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마전교로 교량 신설 △세내로 확장 △효자5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1,428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 현금으로 분할납부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는 약 467억 원 상당의 도로와 경관복지, 근린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약 360억 원 상당의 전주 시립미술관을 건축해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교육 장려 △소외계층 돌봄 △지역 문화 지원 △지역 경제 상생 등의 사업을 준공 후 연간 25억 원 이상 씩 20년간 자발적으로 추진키로 해총 385억 원 상당의 공공시설과 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신승민 기자

##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공영민 고흥군수, "국가 우주 인프라의 전략적 배치는 고흥이 최적의 선택"



고흥군이 '한국형 스타베이스'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기棍)'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흥군이 '제2우주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국가 우주정책의 연속성과 인프라 집적화에 있다.

현재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제2 우주센터가 고흥에 들어설 경우, 이미 구축된 고도의 인프라와 전문인력, 운용 경험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와 유인 임무에 대비한 고빈도 발사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 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는 발사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발사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간 기상 암호 일일 250일 이상으로 안정적인 발사 운용이 가능하며, 지진이나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다는 점은 이미 나로우주센터 입지 선정 당시 충분히 검증됐다.

여기에 전국 유일의 우주센터를 조성하며 축적된 행정 경험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그리고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은 제2우주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아울러 고흥군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 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중 대전과 경남에 비해 발사체 거점인 전남(고흥)에만 전담 지원 기관이 없어 산업 육성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발사체 산업은 우주산업 경쟁력 강

화에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흥은 발사체 산업 특구로서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고흥의 잠재력과 유치 노력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지명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다"며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성장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흥군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해 대한민국 우주 삼각축의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미 우주 인프라가 구축된 고흥에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이 국가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고흥을 글로벌 우주 랜드마크로자 진정한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흥·광주 고속도로, 고흥과 녹동을 잇는 철도 노선 등 3대 교통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덕현 기자

##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시행자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 인 궤도에 올랐다.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 1 고장 0.2GW 해역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주)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곳으로,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남권윈드파워(주)는 텁풀면하나자산운용(주)을 대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컨소시엄에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비롯

해 (주)디에이아이코퍼레이션, 그린종합건설(주), (주)부강건설, (주)세광종합기술단,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한전KDN과 중앙해양중공업(주)도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사업시행자에게는 향후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인허가 및 건설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이후 2050년 12월까지 20년간 상업 운전이 이뤄진다.

서남권윈드파워(주)는 올해부터 발전 사업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단지배치 설계, 주민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익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치로 확보해 발전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향후 인프라 조성과 유지보수항 개발, O&M 장비 및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고장 해역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해역 등 추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

## 글로벌 농식품시장 트렌드공유 경쟁력 강화

국가표준 개정에 따라 2027년 3월부터 중국 내 유통·판매 사전포장식품은 개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일본은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레시피 추천, 영양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식품소비 형태와 소용량·간편식 중심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은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친환경 포장 식품 전환이 가속될 전망이다. 최소 포장식품, 소포장 식품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포장재 등 친환경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아세안은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를 배경으로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장으로, SNS·모바일 기반 소비와 음식 배달 서비스가 식품 구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적불금 43억 원 ▲해외 식품규격 인증 취득 지원 등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24억 원 ▲해외판촉,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12개 사업에 105억 원을 투입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수출업체의 2026년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국은 제과·스낵, 유제품·계란, 육류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고단백·저당 식품 소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와 성분 투명성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2025년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통칙

우덕현 기자



국은 중국·인도·미국·일본을 중심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멕시코, 나이지리아, 프랑스 등이 포함됐다. 2025년 품목별 비중은 유통(16.9%), 빵·곡물류(16.0%), 유제품·계란(13.8%), 채소(12.6%), 과일·견과(10.0%), 과자류·스낵(9.7%) 순이다.

미국은 제과·스낵, 유제품·계란, 육류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고단백·저당 식품 소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와 성분 투명성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2025년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통칙

## 전기 저상버스 운행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저상버스 4대 도입, 시승 행사 개최와 함께 운행 시작



입은 우리 군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지난달부터 해당 차량을 실제 노선에 투입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청년정책 핵심과제로 ▲청년 주도 창업 생태계 확장 ▲청년 참여 기반의 소통·沟通·Networking 강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영임 기자

## 의산 청년 취업 부담 덜어준다…면접 정장 지원

라인으로 접수한 뒤 쿠폰 번호를 발급 받아 대여업체에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쿠폰 번호는 문자로 전송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의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산시 관계자는 "면접 정장 대여사업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고물과 시대 농업인이 영농 경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이채봉 기자